

\*반주음원QR



##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박정관



Copyright (C) 박정관 - Used by Permission



암송구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 16:15)

##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 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p>1907 금촌교회</p>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 촌 교 회

## 트랙터 가정예배문

이것이 무엇이나  
(출애굽기 16:13~20)



### 1 함께 찬양하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 310장)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반주음원QR



### 2 함께 본문 읽기

출애굽기 16:13~20

-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  
을 거둔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둔지니라 하셨느니라
-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 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마르지 않게 물을 대어주고,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돌보아줍니다. 비록 농부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수고를 하지만 사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신비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발아할 시기를 찾고, 땅속과 공기 중의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 영양 상태의 변화를 융합적으로 고려하여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운 씨앗은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적합한 살길을 선택하며 자라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꽃을 피우고 또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광합성과 호흡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산소와 당류를 만들어 내며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식물은 동물처럼 머리가 없어도 그저 잘 자라고 성장합니다. 비록 농부가 애쓰고 있을지라도, 결국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눅12:28)’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저녁에는 □□□□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 지면에 □□ □□□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②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 □□□□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이라

###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의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②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냐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왜 은혜인지요’ 감격했던 순간을 나누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 광야는 ‘수르’ 광야인데, 이곳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 물로 바꿔주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두 번째 광야인, ‘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인해 애굽을 그리워하며 아주 큰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은혜였지만, 지금은 은혜가 곧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며 광야의 식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이것이 무엇인냐”라고 외쳤는데, 바로 이 표현이 그 양식의 이름 ‘만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냐고 탄성을 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동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